



공간전략디자이너가 디자인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냉장고. (중립디자인스튜디오)의 김중원과  
 삼성전자 비즈포크 냉장고의 만남처럼 비범한 시너지가 돋보이는 건 흔치 않다.  
 PHOTOGRAPHED BY CHUNG WOO YOUNG



TIMELESS VALUE

GQ x SAMSUNG



구호의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 설화수 스파, 레스토랑 알테르 에고를 비롯해 강아지 호텔, 동네 빵집까지 다양한 공간을 작업해왔다. 그래서 당신이 냉장고를 디자인한 게 의외라고 생각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공간을 설계하는 내게 냉장고라니, 잘할 수 있을지 우려도 됐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는 기존 제품들과 완전히 다르더라. 실물을 보고 방향성을 확인한 뒤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다고 판단했다.

**비스포크는 무엇이 다른가?** 사실 공간 디자인에서 냉장고는 정애물과 같다. 아무리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도 커다란 냉장고를 놓는 순간 그것만 보이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냉장고를 반쯤에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기성품의 특성 탓에 공간의 개성이 크게 반감된다. 반면 비스포크는 공간의 일부가 되는 빌트인 제품처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냉장고 구성과 색상, 재질을 선택해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다.

**결과물은 만족스러운가?** 항상 마음에 꼭 드는 결과물은 없다. 모든 작업에 최선을 다하지만 손을 떠나면 아쉬움이 남는다. 그 대신 클라이언트가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클라이언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내 역할이니까. 이번 작업 역시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잘 구현된 것 같다.

**어떤 메시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이 지닌 가치와 소재의 매력은 휘발될 수밖에 없다. 내 일에 대한 담대함일까. 이 부분이 늘 안타까웠다. 반면 예술 작품은 오래일수록 빛을 발하지 않나. 비스포크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가전제품도 시간의 궤적 안에서 가치가 더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실은 문을 열어 보기 전까지 냉장고를 잘 몰랐다. 거대한 스케일과 역동성을 담아낸 회화 작품이라 소개해도 믿을 것 같다.** 냉장고라는 제품은 사람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일 그 문을 여거나 문을 열고 안을 채우고 무언가를 꺼낸다. 여기에 착안해 무브먼트를 강조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번 협업에 영감을 준 예술 작품이나 아티스트가 있나?**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마틴 베르제(Martin

Berger)와 함께 작업을 했다. 자연에서 주로 영감을 받아 벽화 디자인을 하는 작가다. 국내에서 아티스트가 마감재를 작업하는 일은 상당히 보기 드물다. 드색이나 시트 작업 말고도 이렇게 제품의 외관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그의 협업을 했다. 새로운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것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대 장치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설치한 조명으로 웅장함을 더했다. 무엇을 의도했나?** 공간감을 살리고 작품이 돋보이도록 극적인 효과를 줬다. 덕분에 마틴 베르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마감재 특유의 질감이 더욱 강조됐다.

**이 작품과 근사하게 어울리는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작업을 하는 동안 갤러리를 많이 떠올렸다. 방금 든 생각은 사재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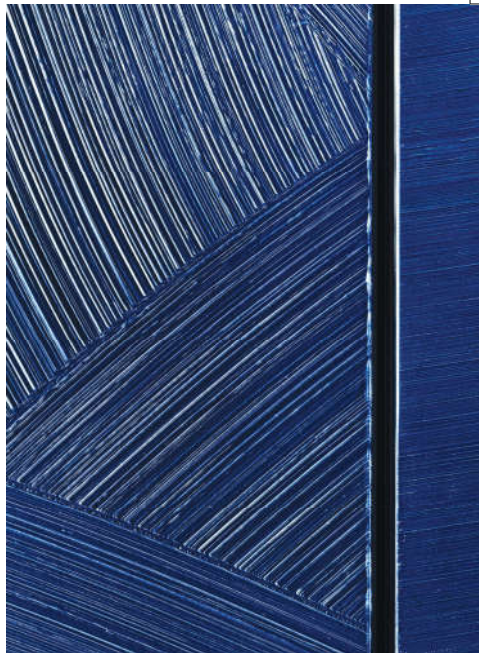
**비스포크와 당신의 공통점은 뭔가?** 비스포크의 뜻은 맞춤 제작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든 클라이언트에게 맞추는 것이 나의 디자인 철학이다.

**공간전략디자이너로서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전략을 제안하기도 한다. 비스포크에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한다면?** 냉장고의 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열리면 어떨까. 예를 들면 슬라이드형. 보통은 문을 앞으로 당겨 열지만 앞으로 밀어 여는 것이 더 유용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어머니가 만들어준 반찬과 여행 때마다 기념품처럼 시은 향신료들이 많다. 요리를 즐겨 하는데 향신료를 다양하게 쓰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

**비스포크를 주문한다면? 색상과 크기를 어떻게 조합할 건가?** 최대한 일은 밖에서 하고, 집에서는 마리를 비우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일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디자인과 연관된 작품이나 스포츠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은 흰 벽이 전부일 정도로 단순하다. 비스포크의 색상도 여기에 맞춰 화이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

**예술작품에는 작품명이 있거나 마틴이다. 이 작품에 이름을 붙인다면?** 타임리스 벨류(Timeless Value), 에디터 / 감명제



**예술가의 일상**

삼성전자의 비스포크에 안착한 마틴 베르제. 그는 일상에서 예술을 증명한다.

한국에 와서 완성된 작품을 본 소감은 어떤가? 너무 놀랐다. 처음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냉장고에 예술을 한다고?'라며 의이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로 가전제품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구현됐다. 작업실에서 작품을 그려면서 상상한 것보다 더 멋지다. 특히 조명 효과가 마음에 든다.

전면 배넌 위를 가로지르는 호랑안 필레나 덴스 퍼포먼스에 비유할 수 있다. 온몸을 써서 빠르고 힘있게 그림을 그리는데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가 요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초안을 스케치한 뒤 연수를 해서 그 이미지를 마음 속으로 각인하는 식이다. 이번 작품은 여러 배넌 조각들을 합쳐 만든느라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일상 속의 예술'이라는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예술은 늘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를 재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그들에게 예술을 교육시키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직접 경험하고 장서적으로 이해해야 예술과 친숙해질

